傘下支部動靜

▲協會本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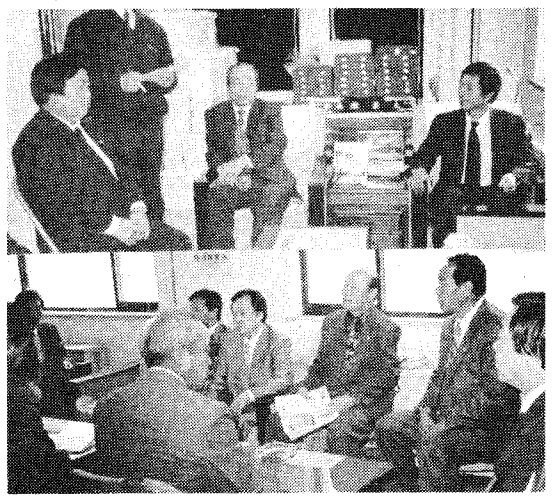
○지난 3月31日 本會 제23次 定期總會를 대의원1백67名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細部內容 1面참조)

○지난 3月30日 제23차 定期總會마무리 준비를 위한 市·道支部長會議 기금 소집

※토의안건:①92년 豫算案 증액편성에 대한 설명및 관하 分事務所에 대한 설특과 이해촉구 ②계약재배 확대실시에 대한 계획 사전 설명및 참여촉구 ③생산및 행정지도위원의 활동강화및 협조당부 ④92년 事業計劃의 사전 설명및 진행실적증대 종용.

○경기도 지부장 이·취임식:협회는 지난 3월21일 경기도 관하 신장및 회원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등에 많은 공로를 남기고 떠나는 지부장 『이웅환』씨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신임지부장으로 추대된 이천군소장 『김성배』씨에게 신규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지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수행을 당부하였다.

○생약재배교육교재(책자):92년 개정판으로 칼라 2천부를 발행 현재 보관중에 있음으로 각 시·도 지부장및 분사무소장 공판장장께서는 이의 활용작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신 부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제1차 지부장회의

○92년도 제2차 市·道支部長會議召集(92·4·27)

※의안:회비징수방법, 생산및 행정지도활동강화 대책등.

제23차 총회결과 주요방침시달(생약 6~37, 92, 4, 10일 참조)

①기본회비 인상 납부에 대하여

분사무소별	92, 3월까지	92, 4월부터	비 고
시·도지부	월20,000원	월30,000원	시·도공판장이 없는 경우
시·도공판장	월30,000원	월50,000원	현행규정되로 환원조치
시·군구사무소	월10,000원	월20,000원	※사무소장이 공판장장을
시·군·구공판	월20,000원	월40,000원	겸직할 경우는 고액회비쪽
읍·면출장소장	월 2,000원	월10,000원	을 택하여 납부할것
일반중앙회원	월 2,000원	월 3,000원	※가입비는 변동없음

②재배현황 파악보고에 대하여 현행제도는 년말 현황을 파악, 익년1월말까지 시·도지부에서 종합작성 보고토록 되어 있는나 관계 당국및 관계기관의 요구와 수입쿼타조정에 필수자료로서 년2회 사용하게 되었음으로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지부산하 생산지도 위원과 긴밀히 협조유지하여 상반기중 1회, 하반기중 1회에 걸쳐 관할지역 재배현황을 파악 시·도지부별로 종합 작성 제출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가, 재배현황(보고내용):재배면적(평), 재배 풀록, 예상수확량(근 또는 kg)

나, 파악기간:상반기(1~6월) 5월까지의 현황을 파악 7월15일까지 보고. 하반기(7~12월) 11월까지의 현황을 파악 익년 1월15일까지 보고 (※년간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

다, 보고서 작성요령:지부생산지도위원과 각급 분사무소장이 상호협조하여 각군별로 작성.

라, 종합보고서작성:지부장은 생산지도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취합하여 지부명의로 본부에 제출.

③기타협조사항

금번 신형개정판(칼라판)으로 발간한바 있는 생약교육교재를 현재 1천8백부정도 보관중에 있으니 각급분사무소장께서는 필요부수(이하30부정도)를 신청, 처분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교육사항

지난 4월10일 강진군 농촌지도소 주관, 협회강진군사무소(김밥제소장)협찬으로 생약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회에서 『속만용』 생산지도위원을 강사로 출강협조시킨 바 있으며 이지역 재배초심자및 회원등 1백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웠다.

▲산하支部록생회

○경기도 支部:지난 3月21日 서울 삼화회관에서 지부주관으로 분기록생회를 긴급 소집하고 기간중 지부관하 조직확대 및 교육에 공로가 많았던 『이웅환』 전지부장이 『팔』도로 이민감에 따른 후임 지부장에 현 이천군소장 『김성배』씨를 추대 선출하고 이의 임명을 중앙본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충북도 支部:4月30日 지부 주관으로 충주에서 1/4분기 록생회 소집.

○충남도 支部:4月28日 지부주관으로 천안에서 1/4분기 록생회 개최예정.

▲경동한약상가번영회

동번영회에서는 지난 4월3일 경동한약상가 ①번코스에서 상가의 날을 개최하고 약2백명의 번영회원이 모인 가운데 ○소년가장 학생 장학금 전달 ○민속놀이(농악및 윷놀이) 약쎨기대회 ○행운권추첨및 시상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며 상가번영을 뜻있게 자축하여 동상가일원에 많은 관심을 모은바 있다.

취나물

권 순 채

〈독자투고〉

들에는 냉이와 쑥, 달래가 있는가 하면, 산에는 취나물과 미역취, 고사리와 고비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취나물은 우리와 가장 친근한 나물이며 봄의 입맛을 돋우며 민간 약용으로도 이용하고 있는 식물이다. 무엇보다도 자연 그대로 공해에 오염되지 않은 심심투메 산골에서 자라는 만큼 무슨 무슨 약초하지만 그중에서도 취나물은 봄의 정취를 풍기는 산나물로서 으뜸이라고 생각된다.

취나물은 부식질인 점토질에서 잘 자라며 그늘이나 햇볕이 잘드는 곳에서도 잘 자란다. 또한 노지에서도 월동하며 16~30도에서도 잘 생육한다. 실생으로 번식도 가능하며 관수는 보통으로 해주어도 된다. 이른봄에 돋아나는 어린순은 나물로 먹고 성숙한 것은 약용으로 사용하는데 꽃이 필때는 키가 큰 관계로 넘어지는 예도 있다.

취나물은 키가 1~1.5m 정도로 자라는 다년초이며 근경은 굵고 짧으며 줄기 끝에는 산방상으로 가지가 갈라진다. 잎의 길이는 9~25cm이고 잎폭은 6~18cm정도이며 잎앞면은 반들 반들하지만 거칠고 털이 나있고 잎뒷면은 녹색을 띠고 있다. 잎뒷면은 거칠면서 약간 흰색을 띠고 털이 나있다.

잎가에는 치아상의 거치가 있거나 복거치가 있는데, 화서의 잎길이는 3~5cm정도로 작으며, 꽃은 흰색으로 8월 하순에서부터 10월까지 핀다. 원산지는 우리나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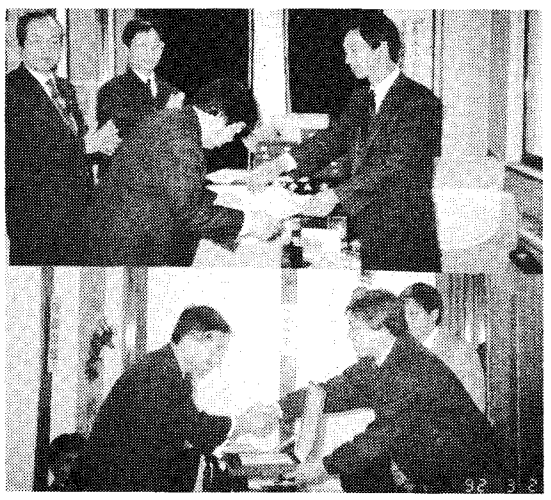
뭐니뭐니 해도 봄의 산나물 맛치 산뜻한 맛은 없을 것이다. 봄에는 산과 들에 약을 친다해도 여름같이 치지 않는 만큼 농약의 피해도 적고 공해도 적어서 봄의 나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그런데 취나물은 우리가 논둑 밭둑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지만 특히 산골짜기 그늘이 나 양지에서 잘되고 꽃도 아무 꾸밈없이 피어나서 좋다. 거칠은 것은 가축의 먹이로 이용해도 좋은 만큼 누구든지 재배해 볼만한 식물이라고 생각한다.

진달래, 함박꽃 아래 돋아나는 취나물이야말로 아리따운 여인의 예쁜 손으로 뜯어져 우리의 식탁에 올려지는 취나물은 그 향기와 부드러움으로 입맛을 돋우어 주고 약이 되므로 나물중에서 좀 흔하다해서 천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무리 영양소가 많고 약이 된다하더라도 집에서 재배하는 것은 약을 안칠래야 안칠 수 없는 만큼 산에서 나는 취나물만 못하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많이 애용하시면은 보건에도 도움을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봄날 만큼 따뜻하고 향기롭고 입맛 돋구는 취나물을 많이 애용하도록 합시다.

〈경북경주군 내남면 망성1리 886번지 전화=43-3282〉



◇경기도 신구 지부장 이·취임식

祝 發展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임원단**

회장	송경태	
수석부회장	이종용	
부회장	임연구	
〃	황인학	
〃	황조연	
이사	박만종	
〃	배명철	
〃	남정룡	
〃	이옥용	
〃	이용황	
〃	이종철	
〃	문대규	
〃	민종권	
〃	박재문	
〃	신영달	
〃	서종한	
〃	김창황	
〃	김동균	
〃	박길부	
〃	박재운	
〃	유진걸	
〃	정형모	
〃	김종근	
〃	이문섭	
〃	강삼석	
〃	함영완	
〃	김용한	
〃	이승훈	
감사	허영(신)	
〃	최맹호(신)	

1992년 4월 20일